ISSN 2635-8832

제주의 꿈

JDC MAGAZINE

2025. AUGUST

NO.
225

지능을 간척하는 섬

COVER.
곽지해수욕장

바닷물이

매우 맑으니

놀러 갈 테야

곽지. 검은 모래가 기억하는 차가운 물.

과물노천탕에서 새어 나온 용천수가 바다를 만나는 순간,

발가락이 퍼트린 온도가 에메랄드 색으로 퍼진다.

한여름 정오의 열기 속에서도 발가락은 얼음을 만난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투명해진다.

일몰이 다가올 때 물은 모든 경계를 지운다.

곽지. 거먼 모살이 생각허는 춘 물.

과물노천탕에서 솟아난 용천수가 바당을 만나는 때,

발가락이 퍼트린 온도가 에메랄드 색으로 퍼진다.

한낮 더운 기운 속에서도 발가락은 어름을 만난다.

민물이영 바당물이 석끼는 자리, 그디서 우린 말강해진다.

헤 지는 때 물은 모든 경계를 지완다.

바당물이

꽁꽁 맑으니

놀멍 갈 거우다

제주의 꿈

NO. 225

JDC MAGAZINE
2025. AUGUST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의 꿈을 알리고 함께 실현하기 위해 발간되는 JDC의 전자사보 **〈제주의 꿈〉**이 지능을 간척하는 섬이라는 테마로 찾아왔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AI 스타트업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제주가 만들어가는 미래 혁신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관광, 교육, 의료, 첨단 분야의 핵심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번호 제주 라1022 **발행일** 2025년 8월 10일 **발행인** 홍보협력실 **편집인** 박영하
발행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보협력실(064-797-5499) **홈페이지** www.jdcenter.com
기획·디자인 칼리그램(02-335-7636) **사보 구독·취소 요청** 02-335-7636

SNS 구독하고 JDC 최신 소식 받아보자!

카카오톡

아이콘을 클릭하면 매 호 발간 소식과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의 꿈〉**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됩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JDC 매거진'을 검색해보세요.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SNS로 연결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ouch

8 **JDC 비전웨이브** Route330 성공 DNA, 2단지로 확산하는 혁신 생태계

14 **터에서 치르다** Route330 첨단기술산업, 제주에서 세계로 도약하다

20 **I'll land, 글로벌** 제주 교육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FSAA

26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새겨진 글로벌 하모니

Hybrid

32 **人site 테이블** From Jeju. To the World

제주에서 세계로 전하는 홍보대사의 꿈

Unique

40 **함께하는 JDC** 온기를 짓는 손길, 희망을 엮어가는 나눔의 연대

46 **JDC 컬렉션** 눈부신 혁신과 글로벌 여름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

JDC면세점 8월 썸머 셀렉션

Multiplay

58 **예술과 Thumb타기** 한여름 밤의 관악 선율, 제30회 제주국제관악제

64 **오름의 일상곡** 계승의 시대, 2025 세계유산축전 현장

Beyond

70 **ESG 리포트** JDC의 신뢰와 보호 속에서 피어나는 제주 상생의 씨앗

76 **모다들엉 마당** JDC NEWS & TOPICS / 독자참여

글. 편집실

Route330 성공 DNA, 2단지로 확산하는 혁신 생태계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

첨단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감도

2028년 완공 예정인 2단지는 1단지와 연계해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착공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 8000㎡ 부지에 조성 중인 이 프로젝트는 202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IT·BT·CT·ET 융복합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날 2단지는 3,6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에서 배출된 유니콘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2단지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융복합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 확장을 넘어 제주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4,27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IT(정보기술)와 BT(생명공학기술)에 집중했던 1단지와 달리, CT(문화기술)와 ET(환경공학기술)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단지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이다.

JDC는 2026년 상반기 1차 분양을 앞두고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준공 전 선분양 시행으로 조기 입주를 유도하고, 앵커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기업특화 지원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영평동에 위치한 1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물리적으로 인접한 두 단지는 인프라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IT·BT·CT·ET 등 4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1단지에서 축적된 성공 경험과 Route330의 혁신 생태계를 2단지로 확산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융복합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

IT·BT·CT·ET 융복합 산업의 청사진, 84만 8000㎡ 규모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유니콘 기업의 산실, Route330이 증명한 가능성

2단지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의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 Route330은 198개 기업을 육성하고 963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누적 투자유치액은 2,950.3억 원(19년~24년)에 달한다.

특히 입주기업들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네이처모빌리티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에 선정됐다. 글로벌 MaaS 플랫폼 '찜카'를 운영하는 이 기업은 미국, 괌, 일본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혁신센터 Route330

추진 방향

4차산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미래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창업기업 성장 지원

도내 창업문화 확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성과

유망기업 유치 누적

198 개사

일자리 창출 누적

963 명

투자유치금 누적

2950.3 억 원

네이처모빌리티

NATURE MOBILITY

포엔

poen
(주) 포엔

퓨처이브이

FUTURE EV
퓨처이브이

포엔은 시리즈B 라운드에서 39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퓨처이브이는 2025년 아기유니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배터리팩 설계와 BMS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 트럭을 제작하는 퓨처이브이의 성공은 제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KAIST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지원, JDC 출자 펀드를 활용한 투자 연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있다. JDC 산업육성본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2단지가 완성되면 이러한 혁신 생태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6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은 청년 인재의 제주 정착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 일자리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가 관광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갖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글. 편집실

Route330 첨단기술산업, 제주에서 세계로 도약하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에서 배출한 스타트업이 연이어 대규모 투자유치와 정부 유니콘 프로그램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고 있다. 포엔의 390억 원 시리즈B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네이처모빌리티의 예비 유니콘 선정, 퓨처이브이의 아기유니콘 선정까지. 제주가 품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힘차게 날갯짓하고 있다.

JDC가 키운 유니콘의 꿈—포엔의 390억 원 성공 신화

2024년 7월 9일,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 기술을 보유한 포엔이 약 39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19년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출발해 2020년 분사 설립된 이 회사가 불과 5년 만에 누적 투자액 467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실제로 포엔은 투자금을 활용해 2024년 미국과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CES 2024 혁신상 수상은 이러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포엔의 성장 비결은 Route330의 체계적인 지원에 있었다. 2022년부터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포엔은 JDC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JDC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스타트업 IR 경진대회 '긱스 쇼업 2023'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포엔 강동규 책임엔지니어는 "JDC의 많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포엔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

긱스쇼업 2023에서 전체 우승을 거머쥔 포엔

"특히 산업육성팀에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크로스체크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뿐인가요. 제주센터가 생기고 법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행사인 인터배터리 참가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24년 JDC패밀리데이에서는 기업베스트 포토제닉 3등 상품까지 받았답니다."

Route330, 혁신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포엔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다. Route330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정부의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선정되며 제주 창업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전기트럭 및 부품 제조 스타트업 퓨처이브이는 2024년 센터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17개 기업이 도전해 50개만 선정된 이번 사업에서 4.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것이다. 이로써 Route330 입주기업이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사례는 네 번째가 됐다.

렌터카 가격 비교 플랫폼 '찜카'를 운영하는 네이처모빌리티 역시 Route330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2022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에 최고 성적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예비 유니콘으로까지 도약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제주 기반 기업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JDC에 따르면 제주혁신성장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72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총 1,699억 원의 투자유치를 견인했다. ICT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은 기술 개발 지원부터 법률 자문, 홍보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KAIST 등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입주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JDC 산업육성본부는 "Route330 입주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은 제주 창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경영·기술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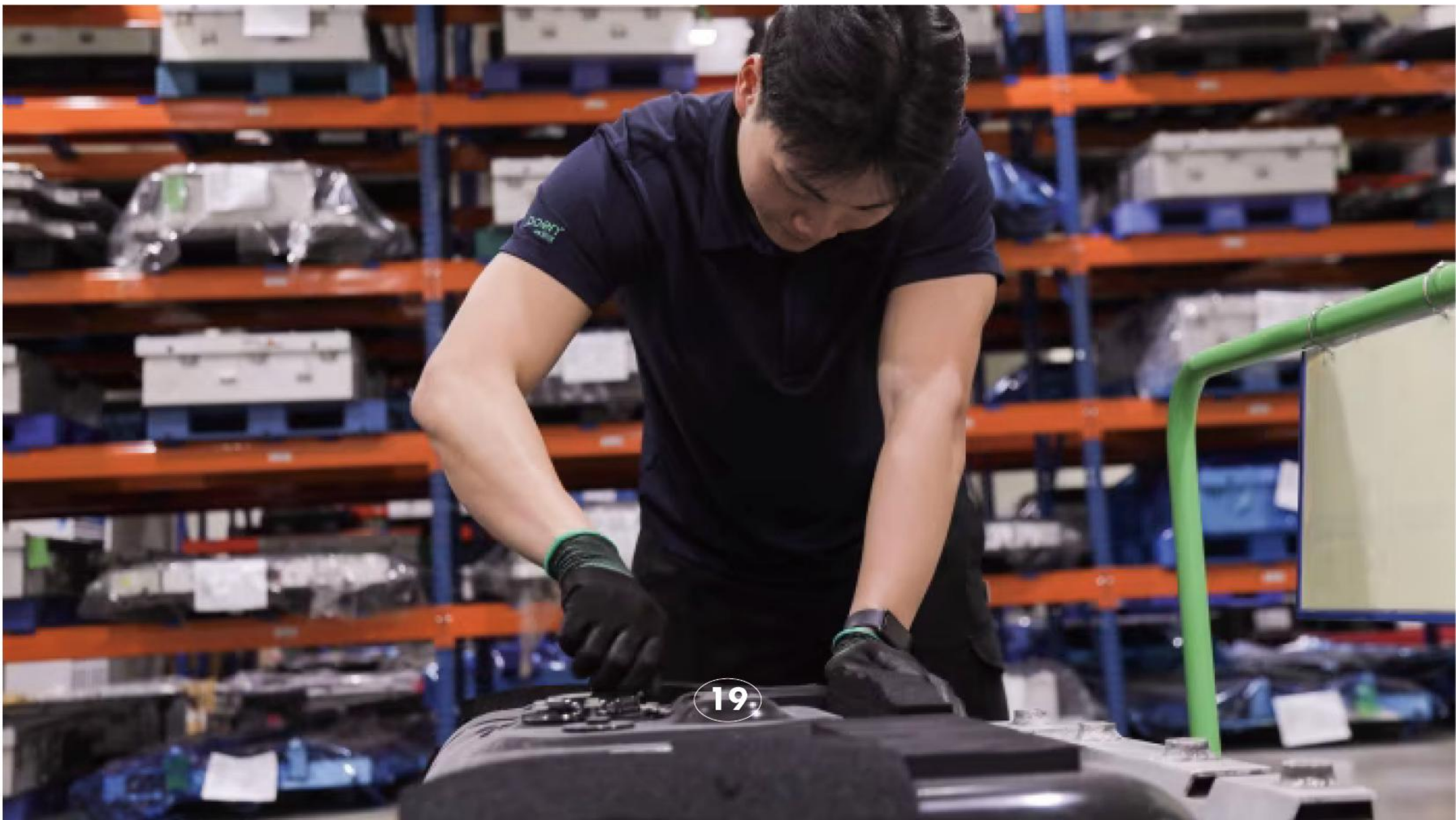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함께 그리는 글로벌 생태계

Route330의 성과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맞물려 제주가 글로벌 유니콘 육성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84만 8,000㎡ 규모로 조성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IT, BT, CT, ET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1단지에서 성장한 Route330 기업들과 2단지에 입주할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는 제주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망이다.

포엔이 제주도 내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Route330 출신 기업들은 제주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JDC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퓨처이브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Route330에서는 더 많은 유니콘 후보 기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의 청정 환경과 첨단 인프라, 그리고 JDC의 체계적인 지원이 만나 만들어낸 이 성공 방정식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아가는 Route330의 스타트업들. 그들이 써 내려가는 성장 스토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



글. 편집실

제주 교육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FSAA

↑
제주국제학교 FSAA 조감도(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 제공)

글로벌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시작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명문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Fulton Science Academy Private School, 이하 FSA)를 본교로 하는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이하 FSAA)이 순수 민간자본 100%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FSAA는 STEAM 융합교육과 혁신적 교육 철학으로 아시아 교육 허브로서 제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전망이다.

순수 민간자본이 일군 교육 혁신의 씨앗

지난 2025년 2월 5일, 서귀포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FSAA 국제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민간 자본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짓는 사례로, 기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이 정부 또는 JDC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설립된 것과는 다르게 민간 주도로 교육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다.

학교운영법인인 ㈜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은 2024년 3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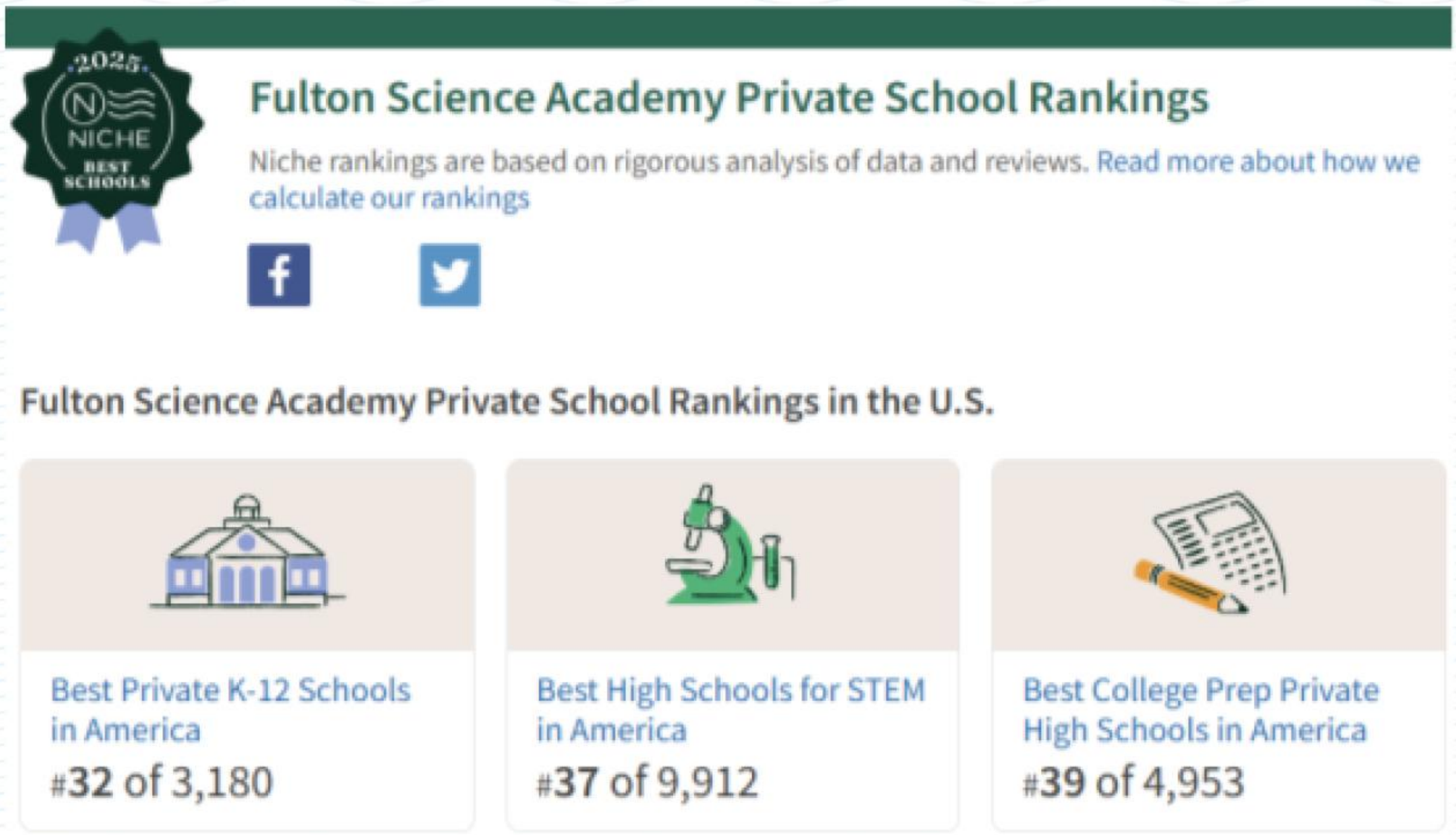
세인트존스베리(SJA) 국제학교 서측 2개 블록, 8만 4,115㎡ 부지에 학교와 학생 기숙사, 교직원 기숙사, 행정시설동, 아트센터, 체육관 등 총 16개동 규모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약 26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2028년 8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그저 민간 자본의 투자가 커졌다는 함의를 넘어선다. FSAA의 모태인 미국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FSA)는 2012년 개교 이후 미국 교육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교육부가 선정한 '블루 리본 학교', Character.org의 '전미 인성 학교'로 인정받으며 학업과 인성 교육 양 측면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교육 평가 기관 Niche.com이 발표한 2025년 순위표에 따르면, FSA는 조지아주 최고의 사립 K-12 학교 1위, 조지아주 최고의 STEM 고등학교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전체로는 사립 K-12 학교 3,180개교 중 32위(상위 1%), STEM 고등학교 9,912개교 중 37위(상위 0.4%)에 올랐다. 이러한 성과는 조지아 공대(조지아텍) 등 지역 내 명문 대학들과 이중 등록(Dual Enrollment) 프로그램(대학의 수업을 미리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로 분석된다.

↓

FSA 전미 학교 주요 순위(Niche.com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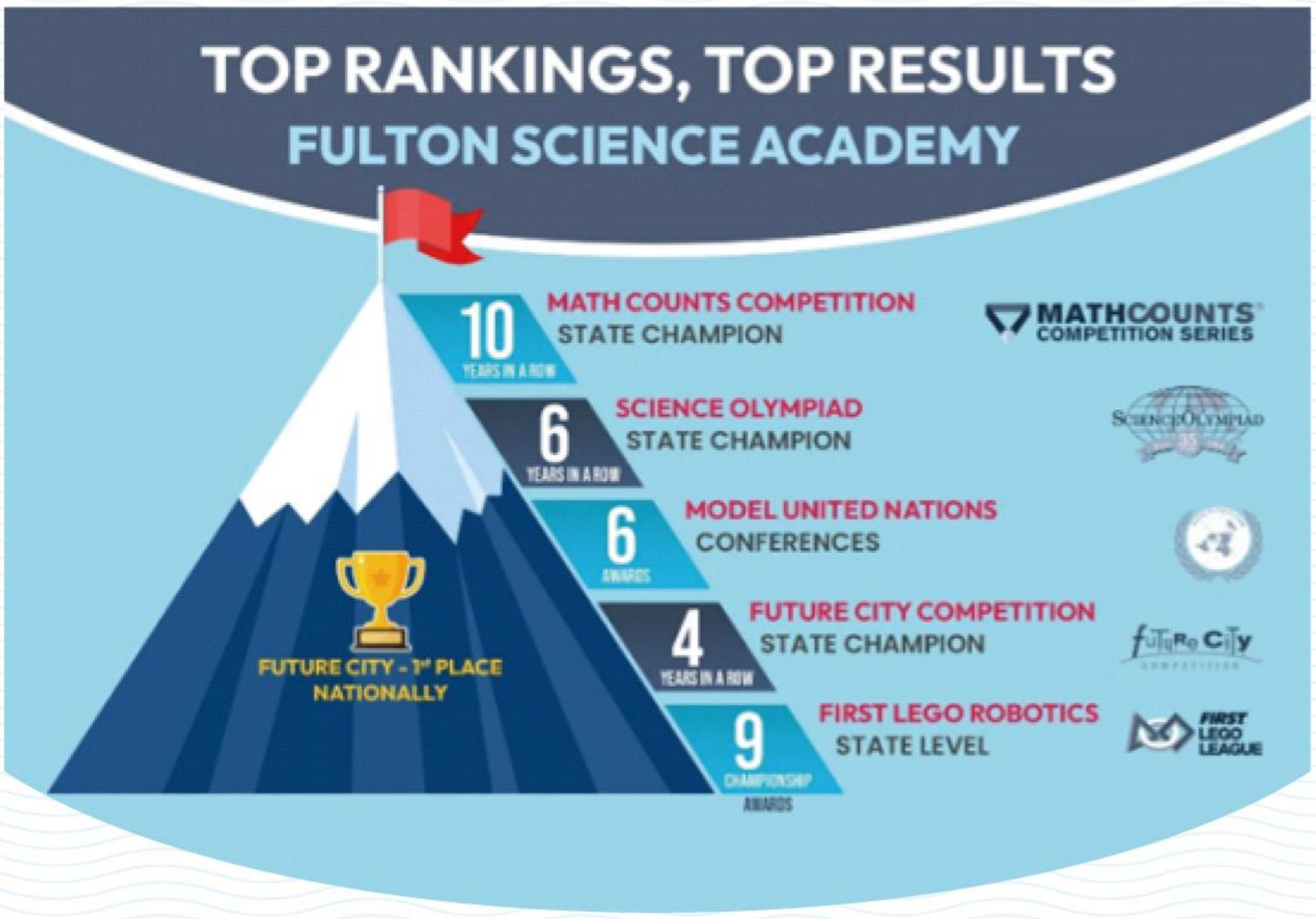
STEAM 교육이 가져올 제주의 미래

FSAA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전 과정에 걸쳐 STEAM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융합 교육을 핵심 커리큘럼으로 채택한다. 총 63학급 1,35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 대 교사 비율 8:1의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개별화 교육을 구현한다. 전 학년에 미국교육 과정과 AP(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내국인 학생은 국어와 한국사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미국 본교의 교육 성과는 STEAM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졸업생의 75%가 미국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했으며, NWEA MAP 평가에서 전 과목 전국 상위 1%를 달성했다. 학술 대회 성과도 두드러진다. MathCounts 수학 경시대회 10년 연속 조지아주 챔피언, 수학 올림피아드 9년 연속 조지아주 우승, 과학 올림피아드 2년 연속 조지아주 우승을 기록했다. 또한 Future City Competition 4년 연속 주 챔피언 및 전국 1위, FIRST LEGO Robotics 총 9개 챔피언십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FSA의 주요 경진 대회 실적



FSAA의 교육 철학은 'ICARE'로 요약된다.

정직(Integrity), 호기심(Curiosity), 권리 옹호(Advocacy), 회복탄력성(Resilience), 공감 능력(Empathy)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학업 성취와 인성 발달의 균형을 추구한다. 150개 이상의 학생 주도 클럽 활동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2026년 가을부터 시작될 입학 전형은 Rolling Admission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학 평가는 GPA, MAP 시험 점수, 학생 및 학부모 면접, 영어 작문 평가, 교사 추천서, 과외 활동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다면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FSAA의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교육 다양성을 확대하고, 한국 국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 본교 FSA 및 커리큘럼 소개, 미국 대학 입시 관련 정보, FSAA 입시 요강 및 개교 준비 과정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SAA 홈페이지 : fsaatherton.org, FSAA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fsa_atherton)

글. 편집실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새겨진 글로벌 하모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JDC 글로벌 프렌즈 3기가 약 8개월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4년 9월 27일 발대식부터 2025년 6월 30일 해단식까지, 참가자들은 제주의 매력과 JDC의 비전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특히 이번 3기는 도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외 거주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

제3기 JDC 글로벌 프렌즈 발대식 현장

다양성이 빚어낸 글로벌 시너지

JDC가 2022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올해로 3기를 맞았다. 이번 기수의 임무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SNS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것. 특히 SNS 채널 활용 능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선발되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파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 몽골,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모인 20명의 글로벌 프렌즈 3기는 그 자체로 다양성의 힘을 보여준다.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참가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있었다.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50대 중반 전문가까지, 연령대도 폭넓었다. 제주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재학생과 대학원생, 영어 강사, 뮤지션, 라디오 리포터, 여행사 운영자, 제주도교육청 직원, 호텔 서비스직, 프리랜서까지 직업군도 다채로웠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문화적 배경을 활용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국어로 제주를 소개하고, 영상과 사진으로 제주의 일상과 특별함을 담아냈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JDC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 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제주의 미래 비전을 체험했다.

8개월간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활용해 제주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JDC가 추진하는 신화월드, 영어교육도시, 면세점 등 핵심 프로젝트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

제3기JDC 글로벌 프렌즈 아이디어 콘테스트

아이디어로 그려본 제주 홍보의 미래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JDC 본사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기 글로벌 프렌즈 아이디어 콘테스트 & 해단식'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8개월 전보다 강해진 결연함이 묻어났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그들이 제주에서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을 쏟아낸 무대였다.

제주 3개 팀을 비롯해 서울, 부산 각 1팀씩 총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해온 이들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선보였다. '제주 패스'와 같은 통합 관광 상품부터 JDC의 역할을 알리는 'JDC Link & Impact' 캠페인, 특별한

체험을 담은 'Jeju Envoy Package'까지. 글로벌 프렌즈들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발표는 각 팀의 개성을 담아 다채롭게 진행됐다. JDC 임직원들은 서포터즈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JDC 홍보협력실 팀장은 "서포터즈들이 제안한 귀한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JDC의 홍보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콘테스트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8개월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소감을 나누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제3기 글로벌 프렌즈가 남긴 것은 단순한 홍보 콘텐츠가 아니다. 이들은 제주와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JDC가 꿈꾸는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이 다국적 홍보대사들이 뿌린 제주 사랑의 씨앗은 이미 전 세계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그들이 세계 곳곳에 찍어둔 8개월의 발자국은 글로벌 제주를 향한 또 다른 비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

긱스쇼업 2023에서 전체 우승을 거머쥔 포엔

"특히 산업육성팀에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크로스체크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뿐인가요. 제주센터가 생기고 법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행사인 인터배터리 참가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24년 JDC패밀리데이에서는 기업베스트 포토제닉 3등 상품까지 받았답니다."

Route330, 혁신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포엔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다. Route330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정부의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선정되며 제주 창업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앤디(Andrea Data) **JDC 글로벌 프렌즈 3기 아이디어 콘테스트 수상자**

필리핀 출신 영어 강사. 33세. JDC 글로벌 프렌즈 3기로 활동하며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 기획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 거주 외국인으로서 JDC와 제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글로벌 프렌즈로 활동하며 제주와 JDC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프렌즈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3기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주의 꿈 매거진에 소개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글로벌 프렌즈로 활동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2024년 선플라워 페스티벌을 홍보했던 경험이에요. JDC 팀과 함께한 이 활동이 제게는 가장 특별한 추억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평범한 사람인 저에게 PD님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덕션으로 브이로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JDC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마치 K-pop 아이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발표하신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저는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교육받고,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요. 동시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홍보 능력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면서 JDC 국제자유도시의 글로벌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제 비전은 현재 JDC가 하고 있는 활동을 강화해서 진정한 글로벌 규모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주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가 제공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는 제주의 아름다움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매력을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JDC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프렌즈로 활동하면서 저는 JDC가 완성한 프로젝트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그리고 미래 계획들을 보며 계속해서 놀라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JDC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번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진심으로 들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주를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제주에서 방문할 만한 곳을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함덕해수욕장을 추천해요. 저에게 그곳은 정말 K-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장소거든요.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가운데에는 매력적인 카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나누면 사람들은 정말 흥분하면서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해요. 그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저도 설레고,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성공은 우수한 성적표와 함께 인성,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배움을 실제 세상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The 3rd JDC
GLOBAL FRIENDS
for 2024
회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포럼, 제주
The 4th Asia-Pacific Young Leaders Forum, Jeju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움직임
Movements of Youth Changing the World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글로벌 체험부스
Global Booth

글로벌 프렌즈 활동을 마치며, JDC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JDC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모든 홍보 채널을 영어로 전환하는 거예요. 한국 밖에서 제주를 경험하러 오는 방문객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홍보 내용과 이야기를 그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니까요.

또한 글로벌 프렌즈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분명히 더 많은 외국인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끌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주와 JDC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글로벌 프렌즈 활동은 끝났지만, 제 안에 심어진 홍보대사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SNS를 통해 전 세계 친구들과 제주 이야기를 나누며, 언젠가는 제가 제안한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가 실제로 열리는 날을 꿈꿔요.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그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 그게 제가 제주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글. 편집실

온기를 짓는 손길,
희망을 엮어가는
나눔의 연대

글. 편집실

제주 교육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FSAA

↑
제주국제학교 FSAA 조감도(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 제공)

↓

긱스쇼업 2023에서 전체 우승을 거머쥔 포엔

"특히 산업육성팀에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크로스체크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뿐인가요. 제주센터가 생기고 법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행사인 인터배터리 참가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24년 JDC패밀리데이에서는 기업베스트 포토제닉 3등 상품까지 받았답니다."

Route330, 혁신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포엔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다. Route330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정부의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선정되며 제주 창업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

서툴지만 바느질로 아기 이불포를 만드는 참가자들(위)과 연대의 벽에 남긴 메시지(아래)

효율보다는 가치를 선택한 이유

'온기직조—첫이불공방'은 효율보다 가치에 집중했다. 기성품을 구매해 기부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과정 자체에 주목했다.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받는 사람의 감동,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전달된 이불은 그저 생활용품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실질적 도움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위로의 징표가 된다. 드림나눔봉사단이 추진하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 및 문화 향유권 지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JDC의 ESG 경영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증명된다. 거창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업무 시간을 활용한 봉사활동에 13명이 기꺼이 참여한 것은 조직 내부에 나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다.

드림나눔봉사단은 앞으로도 봉사의 보폭을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8월 22일에도 자원봉사 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JDC의 사회공헌 활동은 복지에서 환경으로,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제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을 방문해 이어질 전망이다.
한 땀 한 땀의 바느질이 모여 따뜻한 이불이 되듯, JDC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제주를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제주에서 방문할 만한 곳을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함덕해수욕장을 추천해요. 저에게 그곳은 정말 K-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장소거든요.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가운데에는 매력적인 카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나누면 사람들은 정말 흥분하면서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해요. 그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저도 설레고,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성공은 우수한 성적표와 함께 인성,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배움을 실제 세상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8월의 제주, 햇살은 더욱 강렬해지고
바다와 하늘은 파랗게 깊어간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길. 하지만
강한 자외선과 뜨거운 햇볕 앞에서
피부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세련된
스타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JDC면세점이 준비했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완벽하게 당신을 지켜줄 선크림
3종과 햇살마저 스타일의 일부로
만들어줄 선글라스 5종. 최신 과학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각국의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만나 탄생한 2025 S/S 뷰티 & 패션
아이템들의 특별한 만남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피부를 지키는 혁신적인 과학, 선크림 3종

올여름 가장 주목받는 선케어 트렌드는 무엇일까. 초경량 텍스처에 스킨케어 성분까지 담은 멀티 기능성,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와 메이크업 프라이머까지 겸하는 올인원 솔루션, 그리고 무엇보다 백탁 현상 없는 깔끔한 마무리감. 여기에 친환경 필터까지 더해진 새로운 세대의 선케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❶ 랑콤 UV Expert XTREEM Shield

진보된 프랑스 피부과학의 결정체, 스포츠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자가 복원 UV 쉴드 'XTREEM Shield'는 2025년형 혁신 선크림의 대표주자다. 최신 PGP(Photoreactive Gel Protector)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마찰, 땀, 물에 6배 더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지와 땀에 접촉할수록 오히려 광택과 번들거림이 줄어드는 '자체 광차단 활성화' 효과. 여름 야외활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기존 대비 23% 잡티 개선, 50% 이상 색소침착 억제 효과까지 입증된 올 에이지, 올 타입 포뮬라로 민감성·지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Click!

구매링크 바로가기

1

LANCÔME PARIS

UV Expert
XTREEM Shield
SPF 50+/PA++++

면세점가

78 달러

글로벌 프렌즈 활동을 마치며, JDC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JDC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모든 홍보 채널을 영어로 전환하는 거예요. 한국 밖에서 제주를 경험하러 오는 방문객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홍보 내용과 이야기를 그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니까요.

3

Kiehl's
SINCE 1851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썬스크린

SPF 50/PA++++

면세점가

41 달러

Click!

구매링크 바로가기

Click!

구매링크 바로가기

2

Sulwhasoo

상백톤업선크림

SPF 50+/PA++++

면세점가

76,100 원

햇살마저 스타일로 바꾸는 매력,
선글라스 5종

올해 여름 선글라스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파일럿과 에비에이터의 당당한 복귀, 대담한 스퀘어 프레임의 인기, 그리고 유니크한 컬러 실험. 여기에 친환경 소재까지 적용되면서 스타일과 안구 건강, 환경까지 생각하는 멀티 기능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에드 하디 EDS5895 BLACK

스트리트 무드를 세련되게 담아낸 블랙 스퀘어 프레임. 레트로 감성과 모던한 존재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페스티벌룩부터 캐주얼, 심지어 포멀까지 모든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실용적인 매력을 자랑한다.

2

Ray-Ban

Daddy-o

면세점가

135 달러

Click!

구매링크 바로가기

Ray-Ban 대디오(Daddy-o)

'빛(Ray)을 차단(Ban)하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글라스 본연의 아이덴티티에 충실한 브랜드 레이벤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대디오(daddy-o)는 클래식한 감성에 스포티한 디자인을 결합한 모델로 오벌 라운드 쉐입과 윈드쉴드 고글형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 모델은 레이밴 특유의 G-15 그린 크리스탈 렌즈를 적용해 선명한 시야와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춰 스타일과 실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3

Maui Jim

Ho'okipa Ultra

면세점가

229 달러

MAUI JIM Ho'okipa Ultra

하와이 감성의 대표 브랜드답게 Maui Ultra 편광 렌즈와 매트 블루 프레임이 선사하는 시원한 느낌이 일품이다. 최첨단 PolarizedPlus2® 렌즈가 색감과 디테일을 선명하게 살려주어 2025 S/S 컬렉션에서 '웰니스+컬러' 콘셉트로 각광받는 스포츠·아웃도어 선글라스의 대표격이다.

Click!

구매링크 바로가기

4

Maui Jim

Walewaha

면세점가

239 달러

Click!

구매링크 바로가기

MAUI JIM Walewaha

매트 블랙 프레임과 뉴트럴 그레이 편광 렌즈의 조합으로 빛 반사 차단력과 광학 선명도를 극대화한 도심·여행 겸용 프리미엄 라인.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세련된 포멀룩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The 3rd JDC
GLOBAL FRIENDS
for 2024
회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포럼, 제주
The 4th Asia-Pacific Young Leaders Forum, Jeju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움직임
Movements of Youth Changing the World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글로벌 체험부스
Global Booth

JDC제주공항면세점

JDC제주공항면세점에서 완벽한 여름나기!

SUMMER JDC Festa

2025.07.25. 금 ~ 8.18. 월

EVENT 1

4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1만원 증정
(면세점회원에 한함) ※담배제외

EVENT 2

신규회원 가입시 뽑기 이벤트
참여권 증정

Click!

이벤트 바로가기

유의사항

- 사은품 증정은 JDC 면세점회원에 한함
- 사은품은 구매고객 본인 1일 1회 증정됩니다 (중복수령 불가)
- 담배 구매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만 제외)
- 본 행사는 공항면세점 및 온라인 구매고객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본 프로모션은 현장 상황과 사은품 소진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글. 편집실

섬, 바람, 그 서른 번째 울림

한여름 밤의 관악 선율,
제30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의 바람이 관악의 선율로 피어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1995년 도내 관악인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제주국제관악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이한다. 매년 8월 제주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음악 축제는 홀수 해인 2025년 호른, 트럼펫, 테너 트롬본, 금관 5중주의 경연을 펼치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와 세계 각국의 훌륭한 관악 밴드의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국내 음악 교과서에까지 수록된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의 여름 시즌이 곧 막을 올린다.

바람의 섬에서 탄생한 30년의 음악 유산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제주 토박이 관악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곳곳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 음악 축제이다. 30년의 성장 과정 동안 제주국제관악제는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통해 다양한 관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해 왔다. 2009년 4월에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되었으며 국내 음악 교과서에도 대한민국 대표음악제로 수록되어 있다.
축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도 탄탄하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 예술창작주체지원 사업에 선정돼 3년에 걸쳐 총 1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제주의 문화 진흥과 관악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국제관악제 관련 콩쿠르에 대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관악의 향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양승보)가 주최·주관하는 국제관악제는 3월 봄 시즌과 8월 여름 시즌으로 나눠 도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열리고 있다.
2025년 봄 시즌은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봄을 여는 팡파르'를 주제로 한 2025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공연이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등에서 열렸으며, 개막 공연은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에서 미 8군 군악대 목관 5중주와 미국 여성 금관 5중주단 '세라프 브라스'가 장식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제4회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 결선이었다. 1위에 대한민국의 정산들이 선정되어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 6월에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제69회 WFIMC 총회에서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가 신규 분야로 승인되어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
미8군군악대(위)와 독일연방군악대(아래)

이제 무대는 8월 여름 시즌으로 넘어간다. “제주국제관악제 8월 행사 운영 인력을 모집합니다.”라는 공지와 함께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랑스러움과 국민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공군군악대, 대한민국해군군악대, 대한민국해병대군악대, 미8군군악대 등의 연주가 제주해변공연장에서 경축음악회로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의 바람을 세계적 콘텐츠로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의 바람을 콘텐츠로 승화한 세계적인 관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11억 7천만 원을 투입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외 참가팀을 확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해군군악대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평화의 섬, 바람의 고장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금빛 관악의 향연이라는 축제의 슬로건처럼, 제주가 가진 자연적 특성과 관악이 만나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놓치지 않는다. 우리동네관악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단위의 작은 공연들이 이어지고, 봄 시즌 개막 공연에 앞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미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에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1명으로 구성한 제일드림플루트 앙상블팀이 무대에 서서 큰 울림을 주었다.

제30회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 그 의미는 단순히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간 문화의 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축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8월의 제주에서 울려 퍼질 관악의 선율이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 30번째 여름이 기다려진다.

글. 편집실

계승의 시대,
2025 세계유산축전 현장

19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펼쳐진 2025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자연유산과 현대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계승의 시대'라는 주제 아래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이번 축전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참여와 체험으로 채워진 특별한 여정이었다.

만 년의 유산이 디지털로 숨 쉬다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축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도 내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행사다.

이번 축전의 개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7월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기념식이 펼쳐졌다. 성산일출봉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바탕으로 미디어파사드와 해녀, 마을 주민, 예술가들이 함께한 실경공연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희망의 빛 전달 퍼포먼스로 올해 축전의 주제인 '계승의 시대'의 의미를 부각했다.

특히 거대한 스케일의 미디어아트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성산일출봉의 대자연과 예술의 조화는 성산일출봉의 재탄생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순간이었다.

축전의 전야제로 열린 글로벌 포럼도 주목할 만했다. 7월 3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자매결연지역,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 등 7개국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럼 첫 번째 세션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보호지역'의 발표자인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캐나다 칼튼대학교 교수는 왜 세계유산을 디지털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와 디지털트윈, 위성을 활용한 기록 등 세계유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비밀의 문이 열리다, 특별탐험대의 여정

이번 축전의 백미 중 하나는 평소 접근이 제한된 미공개 구간을 탐험하는 특별탐험대 프로그램이었다. 김녕굴, 벵뒤굴 등 용암동굴의 신비와 생태적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문가와 함께 탐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제주 화산섬의 형성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용암이 만들어낸 천연의 조각품들이 가득한 동굴 내부는 참가자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다. 전문 동굴 가이드와 안전요원이 동행한 가운데 진행된 탐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제주 화산섬의 생성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제주의 탄생 역사를 만끽하며 만 년 전 용암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불의 숨길—워킹투어'도 인기를 끌었다. 용암이 흐르며 만들어진 불의 숨길을 따라 걸으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구간별로 3-4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로 운영됐다.

한라산에서는 특별한 경험들이 이어졌다. 한라산 특별산행 백록샘 코스는 추가 참가 모집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평소 제한된 구간을 오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한라산 야간일출산행도 올해 다시 진행됐다. 웅장한 제주도의 자연유산인 일출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산마을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이야기

선흘1리, 선흘2리, 덕천리, 월정리, 김녕리, 행원리, 성산리 등 7개 마을이 참여하는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의 역할도 돋보였다. 유산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축전은 자연유산 안에서 살아왔고, 살아나갈 사람들의 이야기가 축전 곳곳에서 펼쳐졌다.

유산마을 이야기 프로그램은 각 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주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무료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창구가 되었다.

탄소중립시대 속 자연유산 향유를 위한 업사이클링 아트웍도 눈길을 끌었다. 축전 기간 동안 세계자연유산센터 및 워킹투어

구간에 전시된 업사이클링 아트웍은 자연유산의 가치 확산과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유산 보존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자연유산 글로벌 포럼, 제주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제주유산스쿨-오감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는 특별기획전 '제주의 유산'이 열렸다. 제주 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세계유산축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 전시는 축전 기록물과 탐험장비, 제작물 등을 통해 6년간의 축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이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하고 계승해야 할 살아있는 유산임을 보여준 19일. 2025 세계유산축전은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만나는 장이 되었다. 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제주의 자연유산이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 이번 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글. 편집실

JDC의 신뢰와 보호 속에서 피어나는 제주 상생의 씨앗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자산이다. 기술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에, 중소기업 스스로가 지식재산과 기술력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기업 존립의 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제주의 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협력·거래 기업들과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동반성장 시리즈'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제로, 기술력의 든든한 보호막인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해 살펴본다.

모든 거래의 시작이 믿음의 바탕으로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약 49%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기술 침해 경험률은 2%로 대기업(0%)과 중견기업(0.7%)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서의 기술 보호가 산소와도 같은, 절실한 생존 전략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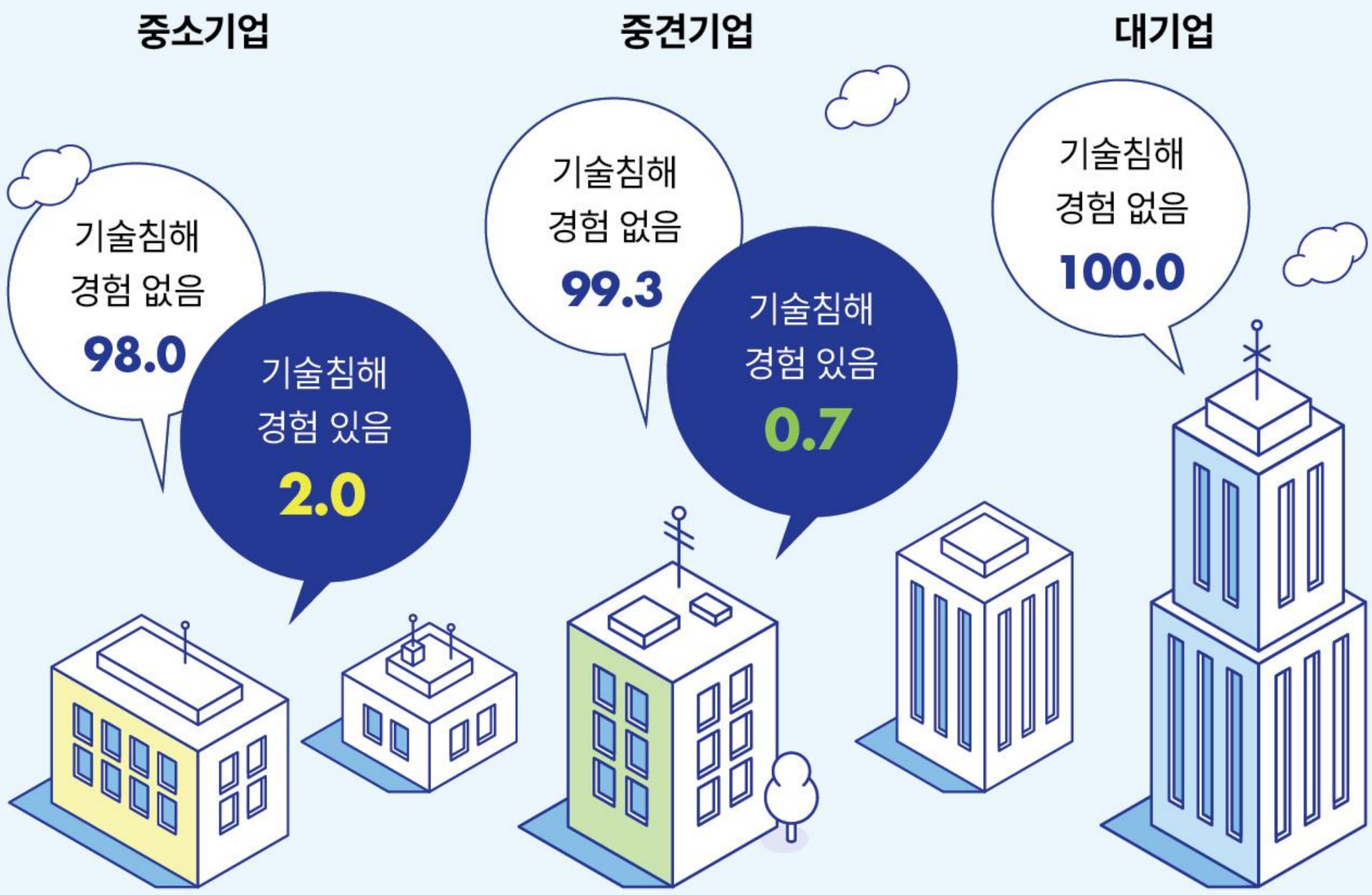
특히, 많은 기술 유출 사례가 계약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과도한 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보호 장치 없이 부당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JDC와 거래하는 협력기업이라면 이런 불안에서 한시름 덜 수 있다. JDC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전면 의무화하여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 및 상대지수

(단위 : 점, %)

2024 기술침해 실태조사

대상 : 4000개 기업



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브로슈어 25년 4월

비밀유지계약으로 구축하는 법적 안전망

비밀유지계약(Non Disclosure Agreement, NDA)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다. JDC는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모든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1조에 따르면,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JDC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근거로 기술자료 제공 전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에는 제공 목적과 범위, 비밀유지 의무,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조항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표준 계약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서식을 참고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제51조(비밀유지계약)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개발센터가 그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비밀유지계약의 세부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 표준비밀유지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실무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 방식, 판매 전략, 기술 노하우 등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자료를 JDC에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은 정보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든든한 보루가 된다. 필요하면 JDC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검토받거나 전달받을 수도 있다.

제주의 성장을 함께 그리는 동반자의 길

비밀유지계약은 이러한 전략을 신뢰와 안전 위에 구현하는 핵심 토대이다. 동시에 기술 침해나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협력 기업 간 투명하고 견고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약속이다. JDC가 구축한 동반성장 정책과 비밀유지계약 체계는 제주 지역에서 기술을 보호하며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ESG 경영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성장의 꿈을 현실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기업 역시 비밀유지계약 제도를 검토하여 기술 보호와 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동반성장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JDC NEWS & TOPICS

●

JDC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네트워킹데이 개최

기업·기관 간 협력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Talk330' 성황리에 마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 7월 3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양빌딩에서 열린 'JDC Route330 네트워킹데이〈Talk330〉'를 성황리에 마쳤다. 'Talk(대화)'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도내 창업 생태계의 연대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참가자 간 소통을 통해 협업 기회를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이어 주요 기관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고도화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1:1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JDC는 "이번〈Talk330〉은 기관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IR 행사,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DC, 정보보호의 날 맞아 어린이집 대상 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전 세대 보안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진행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기념하여 JDC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 직원 대상, 7월 16일 제담이 어린이집 원아 대상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 지부, 제주사이버보안협의회 지원으로 디지털 시대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사이버 보안 실천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해 열렸다.

곽진규 JDC 미래투자본부장은 “AI 등 첨단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정보보호는 전 세대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모든 국민이 함께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DC 드림나눔봉사단, 이음일자리 참여자와 함께하는 JDC가 사랑海 추진

해양 플로깅 활동과 폐플라스틱으로 키링 제작하는 체험활동 진행

JDC는 기관 임직원 봉사조직인 드림나눔봉사단이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18일 해양 플로깅 활동을 추진했다. 현장에는 자원순환 체계 전시 및 해설 부스도 함께 운영되었으며, 수거된 폐플라스틱으로 직접 키링을 제작하는 체험활동이 진행되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JDC 강윤영 상생협력팀 주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과 연계한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JDC, 건설현장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민·관·공 협업을 통한 물품지원 및 5대 예방수칙 홍보

JDC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해 6일'건설현장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도청과 동아오츠카의 협업을 통한 예방 물품 지원 및 5대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획됐다. 곽진규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현장은 장시간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시 돌아온 제주의 꿈! 재발간 특별 공지

제주의 꿈이 THUMB 콘셉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THUMB 콘셉트란?

Touch 직관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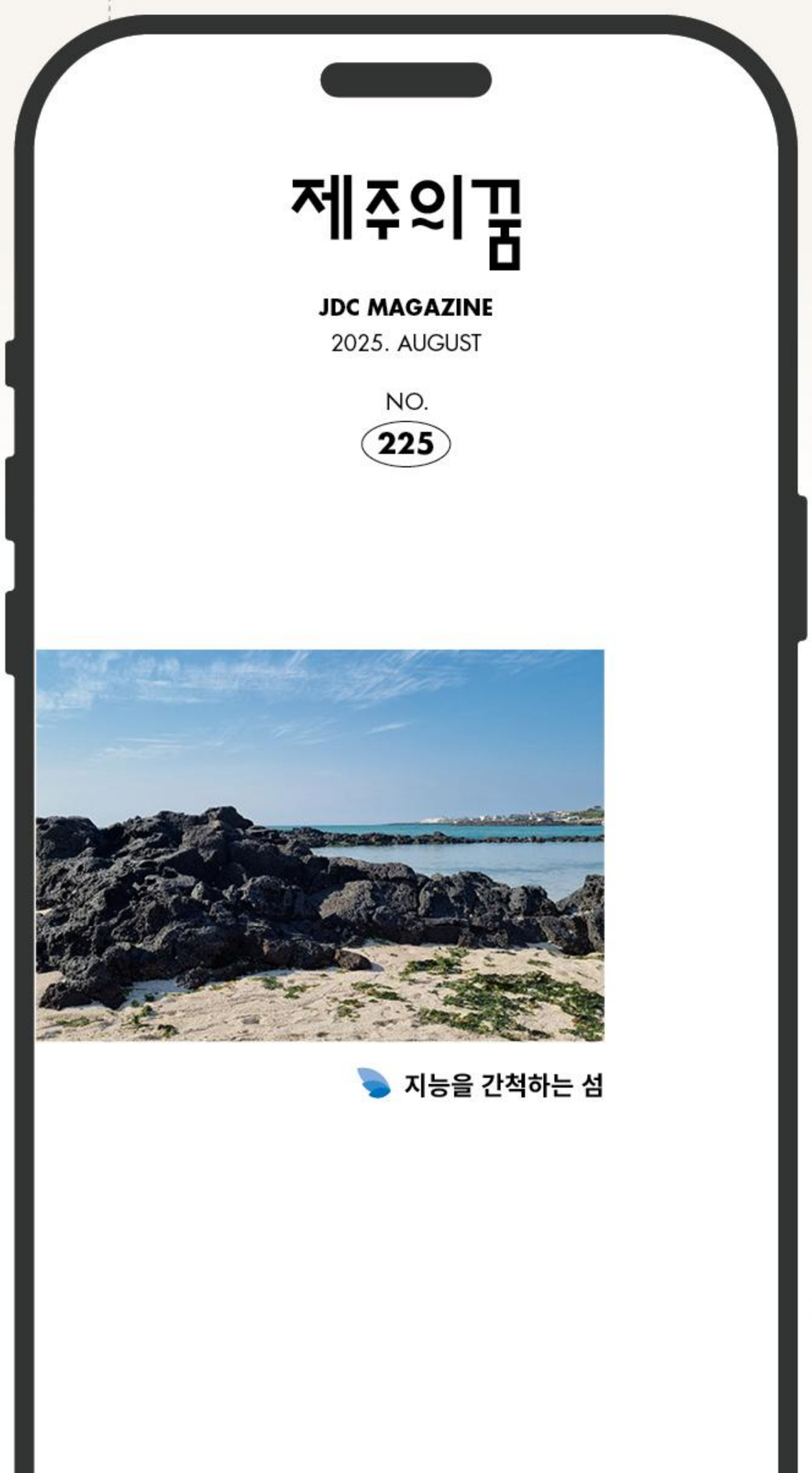
Hybrid 융합

Unique 고유함

Multiplay 다감각

Beyond 확장

손끝으로 만나는 제주의 모든 것!



이렇게 달라졌어요!

모바일 최적화
인터랙티브 전자사보로 전면 개편

제주의 계절을 담은 **영상 화보**와 **ASMR 콘텐츠**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국영문 동시 발행**

터치 한 번으로 펼쳐지는 **생생한 인포그래픽**

새로운 구독 방식과 독자 참여

-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뉴스레터, 웹·모바일,
- SNS를 통한 **통합 구독 시스템 운영**

- 독자 소통 공간 신설 및 만족도 조사,
- 콘텐츠 제안, **우수 후기 선정 시 선물 증정**

만 년의 유산이 디지털로 숨 쉬다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축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도 내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행사다.

이번 축전의 개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7월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기념식이 펼쳐졌다. 성산일출봉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바탕으로 미디어파사드와 해녀, 마을 주민, 예술가들이 함께한 실경공연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희망의 빛 전달 퍼포먼스로 올해 축전의 주제인 '계승의 시대'의 의미를 부각했다.

특히 거대한 스케일의 미디어아트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성산일출봉의 대자연과 예술의 조화는 성산일출봉의 재탄생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순간이었다.

제주 바람을 타고
제주 물결을 따라
실려 온 이야기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시원한 제주 바람을 타고, 반짝이는 제주 물결을 따라 도착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소중한 목소리를 함께 나눠보아요.

김O영 님

부O영 님

7월호 사보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참여 가능한 행사나 전시 내용에 관한 칼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보는 지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이야기에서
참여하지 못한 전시나, 행사를 봤을 때 매우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알게 된 정보로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O영 님

다양한 연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는 내내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면세점에 라코스테가 입점된 게 아주 맘에 듭니다 ㅎㅎ

우리의 이야기는 제주의 바람처럼,
제주의 물결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8월의 청량한 목소리는 9월호에서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에요.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Click!

독자 한마디
바로가기

NEXT 섬네일

다음호 예고

2025. SEPTEMBER

NO.

226

풍요로운 가을, 깊어지는 제주

"**KMI한국의학연구소**의 전국 8번째 센터 개소, **제주 헬스타운**의 새로운 시작"

"제주 유일의 **풀컨티뉴엄 국제학사학위**(IB) 월드스쿨, **브랭섬홀 학교**"

"**JDC 드림나눔봉사단**이 **플로깅**한 추억을 담은 키링"

NEXT COVER. **닭머르해안**

※ 〈제주의 꿈〉 **9월호**는 9월 1일 발행 예정입니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Click!

www.jdcenter.com